

* 팀NO : 2019- 029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인도네시아 (4 팀)

공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스파랑 청년회

3. 사역기간 : 2019년 9월 6 일(금) ~ 9월 14일 (토) / (8)박(9)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Wm

A

67 상사 5/11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인수정사	김 욱	KIM WOOK	1		99-592					
2	총무	집사	한 진	HAN JIN	15		99-446					
3	서기	집사	정순규	JEONG SOONKYU	10		99-589					
4	회계	집사	김진범	KIM JIN BUM	1		2007-0387					
5	의료	성도	마연희	MA YOUN HEE	4		2017-0066					
6	부총무	성도	황의석	HWANG EUI SUK	1		2012-0285					
7	부회계	집사	이혜선	LEE HYE SUN	15		2008-0466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5/12

5/12

홍수안

김재범

단기선교 소감문

작성자 : 청년3부 정순규

사역기간	2019. 09. 06. ~ 09. 14. (8박 9일)
사역지	인도네시아 스마랑 (SEMARANG)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선교를 갈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회사와 가정, 지금 삶도 그리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마감이 9월인데, 추석연휴 기간에 선교를 갈수 있을까?' 에 대한 나름 깊이 고민하며, 올해 초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다. '우선 신청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 는 생각으로 연초에 단기선교를 신청했고, 이제 단기선교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오랜기간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우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5월 김욱 팀장님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4팀에 서기 직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 스리랑카 선교는 다른 부서가 주관 팀에 합류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는 우리 부서 팀이니 큰 어려움은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것은 나만의 안일한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회사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며 업무가 과다해져 단기선교팀의 서기로서 진행해야 할 업무가 지연되었고, 이와 함께 언어암송을 비롯한 선교지에서 직접 진행할 프로그램 준비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었다.

QT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 중 하나는 '내 몸에 가득 들어있는 힘을 빼자' 였다. 이는 나의 생각과 의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적응하며 선교에 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번 계획했었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예정했던 나는 9월 6일 선교지로 향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도착 당일부터 사역 마지막 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며 만났던 청소년 (고등학교와 대학교)과 어른분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가 이분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통해 그간 내가 잃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얻어오게 되었다.

먼저 그들을 대하며 내가 얻게 된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었던 "깨끗하고 순수하며 맑은 영혼" 이었다.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순수하고 맑음 그 자체였다. 반면 내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와 맑음이 많이 부족하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말씀묵상, 기도를 통해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고, 신앙서적들을 통해 주변 기독교 관련 지식도 알아야 한다 생각해서 나름 이런 것들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으려 하지 않아도 이들은 나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과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선교기간 중 그리고 지금도 나 자신에게 계속 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많이 부족하다. 이를 채우기 위해 나름 많이 노력한다 생각했는데, 쌓이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마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먹는데 물을 먹을때마다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지금 내 모습을 이들과 비교해본다면 나는 다른 이들이 보여질수 있도록 그럴 듯 하게 보이려 포장하는 일들에 익숙한 나머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까?' 라 생각하게

한길 가는 순례자

청년3부 인도네시아4팀 이혜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비행기 안..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나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 내 दिल은 그 한발자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즐거워하기 원해요.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해요.’

기도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사역지에서 참으로 큰 유익이 되어 빛을 발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선교훈련이 선교지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흐트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곳,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선교지에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심을 느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르시는 양들이 모인 곳에 우리를 초대해주신 기분이 들었다. 먼져 된 자로 무언가 하려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안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던 작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요단강을 건너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첫날 말씀묵상을 통해 우리가 밟는 이 곳이 마른 땅임을 알려주셨고, 열두 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도전을 주셨다.

[살아있는 예배]

인도네시아 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가운데서 겸허히 고개가 숙여졌다. 설교자는 확신에 찬 열정이 있으며, 성도에겐 겸손한 경청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일되는 목적임을 알게하시고 그 천국백성이 모인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예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

[형제의 연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각각 한 사람씩 보면 흠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하여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나라를 세우심을 보게 하셨다.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합을 기뻐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선한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셨는데, 그동안 너무 헛된 것을 구하며 허무한 싸움을 해왔구나 생각하니 예배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함께 죄를 고백하며,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느끼게 하셨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선교를 맺는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꿈만 같은 8박9일의 여정이 끝났다. 가정을 이루고 지난 10여년간 보슬비은혜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 소낙비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선교를 전환점으로 내 인생 여정의 제2훈련이 시작됨을 느낀다. 어두움과 고난가운데 싸우는 지난 싸움..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다.

움켜진 손을 하늘을 향해 펴고..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소감문>

- 청년 3부 한지 -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풍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개월 가량의 훈련기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8박 9일간 인도네시아 땅에서 청소년 학교 사역과 가정 사역, 지역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현지 백지 선교사님과 함께 1명의 팀원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마음 깊숙히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무슬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고난과 피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느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4팀 소감문

노트북: Untitled

만든 날짜: 2019-09-26 오후 11:12

업데이트: 2019-09-28 오후 11:23

작성자: wookkim

인도네시아 4팀 청년3부 단기선교 소감문

팀장 김욱

9월 추석팀으로 선교를 진행한 저희팀은 4월말에 팀이 구성될때부터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구성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 5명이었던 팀원이 각자의 사정으로 2명으로까지 줄어들면서 불안함과 동시에 이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가게 될 것이면 주님이 팀원을 채워주실것이다'라는 담대함으로 기도를 했고 예상치 못한 구성으로 팀이 다시 7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선교를 가라는 확실한 명령으로 알고 우리는 매주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썼습니다. 모두가 회사에서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바쁜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한주간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었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선교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갈등도 있었지만 무작정 주님만 믿고 떠났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는 한사람 한사람의 기도제목처럼 '기억되는 선교', '주님이 이끄시는 선교', '살아 있는 예배가되는 선교', '인도네시아성도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선교'가 되어져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지역이라 노방전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로 학교전도와 가정교회사역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빠띠지역에 도착하여 첫 사역을 진행했는데 아나나 다름까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웠던 인형극 천막이 공연도중 무너지고, 중간에 등장한 사탄이 너무 무서웠는지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더운 날씨탓에 저희들은 땀으로 샤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사역평가회때 저희는 좀 침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되어있고, 반면 무슬림땅에서 주님이 기르시는 이영혼들은 너무나 맑고, 순수하며 열정적인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리다 우리가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는 내면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안고 기도를 하고 내일의 사역을 위해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차츰 우리의 손발이 맞아지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차량안에서는 부흥집회가 열렸고 도착하는 사역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사역지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예배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무슬림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땅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기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힘과 여유와 열정이 어야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여유와 열정과 힘이 생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삶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선교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누리던것들을 내려놓고 더 힘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나의주하나님이 부르신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공동체에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4팀 (2019.9.6~2019.9.14) 선교지를 다녀와서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떨어져있는 빠디에서 일주일 가량선교 사역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까지 현지에 대한 여러 하나였던 더울거라는 정보는 이곳 빠디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무슬림의 강권적인 영향력으로 그리스도 사역이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을수 있었다. 우리팀은 서울에서 팀이 조정된 후 15주동안 한주도 빠지지않고 팀모임을 했었고 팀원수도 7명이여서 팀웍이 좋았던 팀이었다고 자타 인정하는 팀이되었다. 이런 팀에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그곳에 계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안에 있는 주님까지 보고 올수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3명의 자녀를 둔 엄마 또는 아빠였다. 그들이 너무도 바쁠 수밖에 없는 일상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오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더욱 빛이 났다. 우리팀원들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앞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야 할 바와 행할바를 뚜렷이 보고 깨닫고 왔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 사역지의 주님만을 볼수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도 감사하다. 다음 선교지에서의 주님의 계획하심을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 찬양의 모습을 보며 “자유함”을 보게 되었다. 이 자유함은 표출의 자유였다. 주일 성수를 위해 찾은 예배시 어린 10대 여학생들의 찬양을 보며 우리의 아이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편안함과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이 아이들과 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릴 적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찬양으로 표출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싶다. 선교지에서 보았던 이들과처럼 어떤 것들이 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진정 부러웠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신경쓰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찾을수 있다. 과거 컴퓨터를 통해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휴대전화를 통해 할수 있으며, 검색버튼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도 얻을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소통’이다. 우리는 휴대전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즉 형제, 자매들과 소통에는 어색하다.

선교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불렀던 달람예수 (DALAM YESUS) 라는 찬양이 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린 형제, 자매”라는 뜻이다. 이번 선교를 통해 형제 자매간 소통이 없어진,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되어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4팀(김욱)

2019년 9월 6~14일

김진범

처음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는 글로 표현을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 중 광주에서의 전도 연습에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색했습니다.

인형극과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하나가 되어 선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사역 중 무슬림 학교안에 기독교 학생들의 모임이 있다는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만 바라보는 학생들을 보며 인도네시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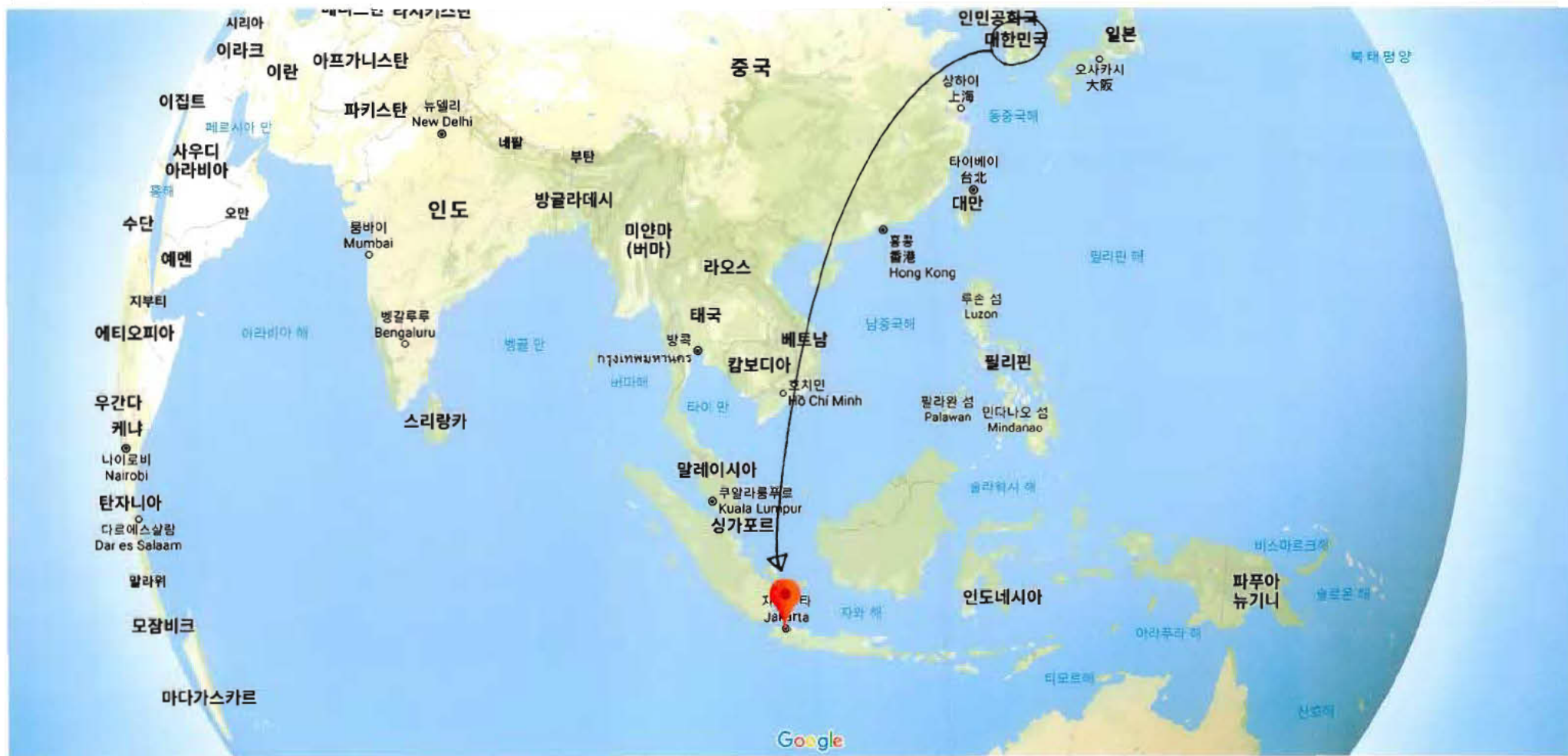
이슬람 사원 옆에 있는 교회와 묘지로 이전한 교회를 보며 무슬림의 핍박을 보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느끼게 되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 져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기 본문 앞

1. 잘했어
2. 그걸 어떻게 했지.
3. 영식 대신해.
4. 실은 겁 나.
5. 흥분해.

남이 듣기 좋은 말

1. 감사합니다.
2. 대답해요.
3. 고생하셨습니다.
4. 멋지네요.
5. 아주 좋습니다.



▶ 여행 + 자카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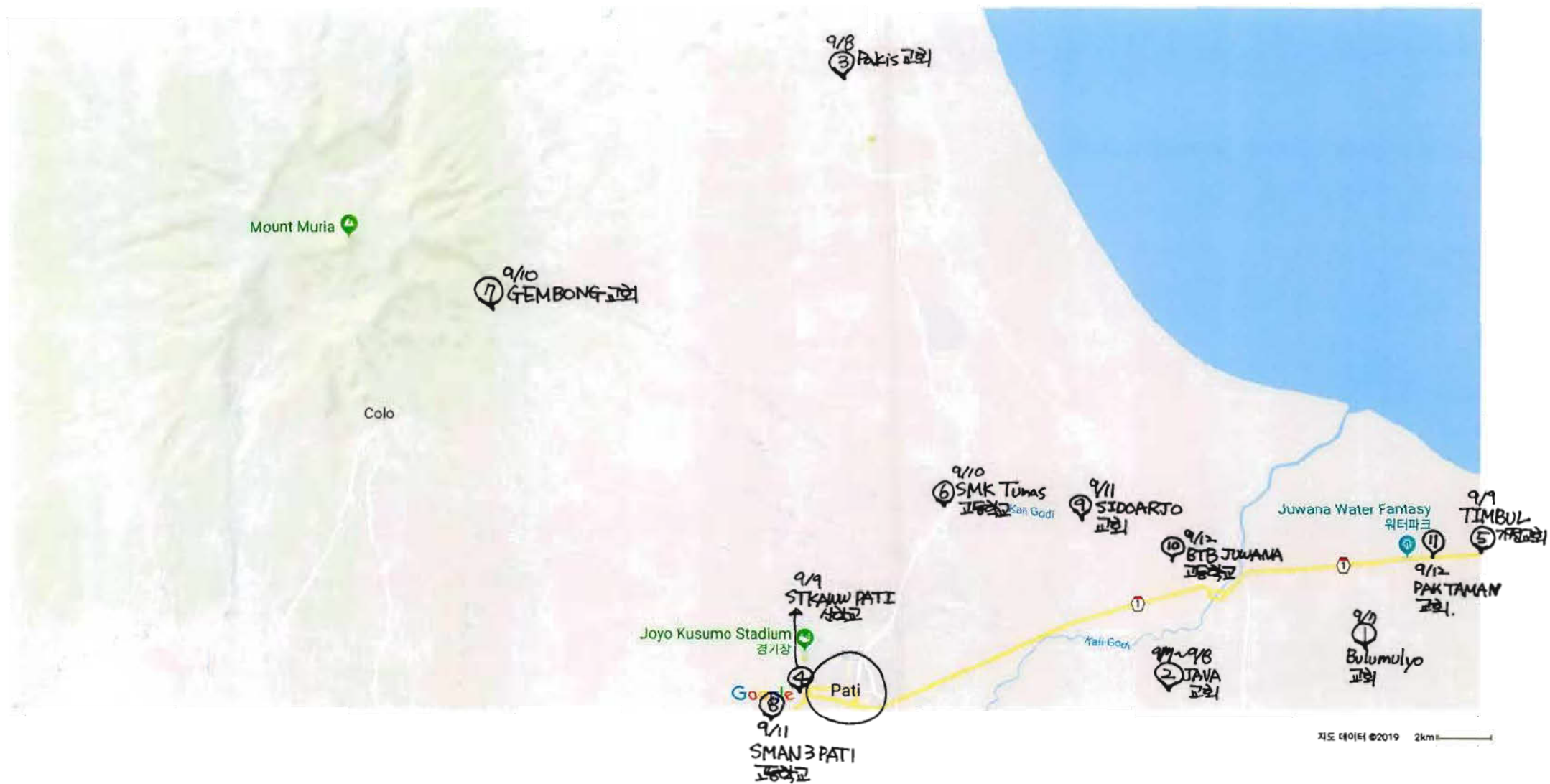


① 9/6 22:00 Pondok Berkas ~~저녁에~~

지도 데이터 ©2019 50km

- 🕒 Kencana Bogor City, West Java, 인도네시아
- 🕒 Gang Kencana Dersah, Karangrejo Lor, Kabupaten Pati, J...

🏠 집
37.505844936473075, 127.03923647995701



- 🕒 Kencana Bogor City, West Java, 인도네시아
- 🕒 Gang Kencana Dersah, Karangrejo Lor, Kabupaten Pati, J...